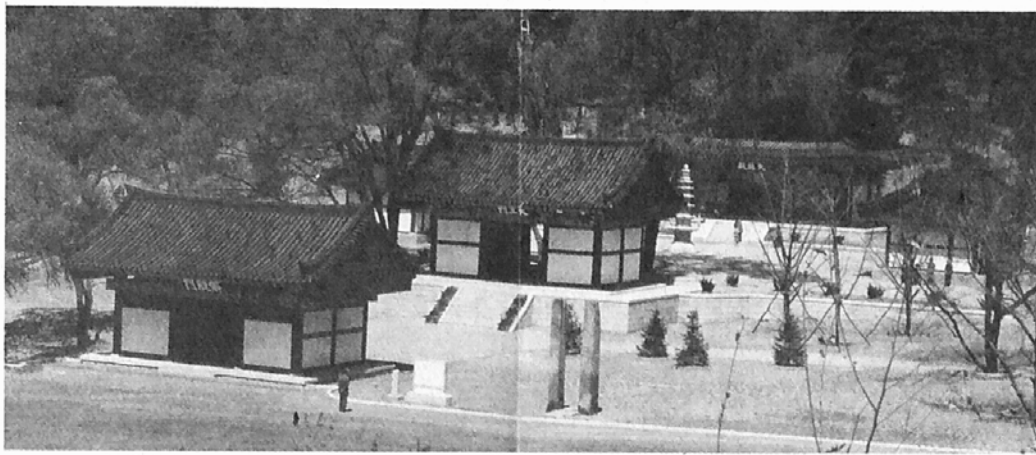


'통일도 봄바람처럼...' 법회에서 발원

4. 27 조선불교도연맹 회동에서 독자들에게 꼭 알리고 지나가야 할 소식이 하나 있다. 동행했던 「평불협」상임고문 정산스님께서 해방전 북에 계시던 스님 몇분의 생사를 알리고 인적사항을 준비해 왔는데, 유점사에 재직하던 광소스님은 최근까지 철보산 개심사에 계시다 열반하셨고 함병준스님은 귀주사에서 열반하셨다고 하였다. 그의 장상봉, 백석기스님 등은 불교도연맹에서도 그 생사여부를 알수 없다고 하였다. 왜 우리가 이분들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우리에게서 형제요, 우리 불자들이 이산의 이름을 지닌 분단 비극의 한



◇2층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탈문, 천왕문, 5층석탑, 동승당, 서승당이 자리한 광범사 전경. 91년에 복원됐다.

더불어 평양의 3대 사찰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며, 북한의 승려 양성기관인 불학원이 있어 세인의 주목을 받는 사찰이다. 광범사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된 고구려시기의 것으로 전정때 폭격으로 소실된 것을 91년 김주석의 직접 지시에 따라 복원하였다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평양의 최대사찰 광범사

(4)

빈터에 대웅전·해탈문등 갖춰 91년 복원 승려 양성기관 '불학원' 운영...간판 사찰

스물 긴 무하마드 알리 뿐이었다. 일본의 참외경기를 위해 이번 평양축전이 준비되었다하니 우리 불자들이 참관자였던 교포들과 함께 조금은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다. 이날 경기장에는 모두 16만의 인파가 스탠드와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모두 열광하였다.

30일 오전, 이제 내일이면 평양을 떠나야하는 우리들은



◇푸른사자를 탄 광범사 해탈문안의 문수보살.

안내원 한사람을 대동하고 불자 몇몇과 함께 두대의 택시에 분승하여 대성산 광범사로 향하였다. 벗들이 만반한 대성산 유원지를 돌아 볼기운 물씬한 광범사에 도착하니 주지 강구인스님이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감격의 남북합동법회

평양 8경의 하나인 대성산 국사봉 기슭에 가만히 정좌한 광범사는 정봉사, 용화사와

한다. 한마디로 묘향산 보현사와 함께 오늘의 북한 불교 간판 사찰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해탈문, 천왕문을 지나 대웅전에 이르니 새로 세운 칠층석탑에서 금방이라도 돌가루가 튀길듯 산뜻한 기운이 전해진다. 몸집은 크지 않으나 비교적 세련된 불단 앞에 서서 나란히 남과 북의 불자가 마음을 모으고 합장한 것은 정확히 정오 무렵 우리는 감격의 남과 북 합동법회를 봉행하였다.

통일이 정녕 무엇인가. 격식을 따지지나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요, 명분을 따지지나 얼마다 걸림이 많은 것이다. 해방이 어느날 예고없이 갑자기 온 것처럼 통일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무슨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주 단순한 머리로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제 통일을 말로만 하고 진정한 속뜻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낮추어라. 통일은 통일이란 구호를 갈래 비로소 이렇게 가깝다

육류관 냉면 '천하일품'

평양 시내에는 육류관에 청류관등 대형 식당들이 몇개 있다. 식당들이 이처럼 규모가 큰 것은 얼른 남들이 가지 않지만 이는 개인 손님보다 대규모 단체 손님이 많기 때문이란 다. 품도 정신도 시종하던 차에 비록 안내원이 옆에 있기는 하나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 우리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니 모처럼 자유인의 기분을 느끼는 평양의 마지막 오후였다.

주부신행담

폭풍이 지난 들에 핀 꽃 ①

얼마전 나는 동해안을 다녀왔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보광사 종무실에서 휴가를 얻어 모처럼의 나들이를 계획하고 넓은 바다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점검과 신앙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산을 떠올리며 여름이 되기 전 미리 바다를 구경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바다를 대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듯한 교차된 느낌을 간간히 느끼곤 한다. 바다앞에 서면 인간은 티끌과 같은 왜소함을 느낀다. 어찌 남을 속일 수 있는 우매한 마음이 생길까? 밤바다 모래밭에 앉아 있으면 더욱 신비한 마음이 생긴다.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파도를 보며 나는 내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을 해 보았다. 불교와 내가 하 나된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진다.

초발심을 낸지 어언 10년. 그런데도 초발심때나 지금이나 발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구자 반지에 게 미안한 일이나 아닌지 반조를 해보았다. 불교를 나의 신앙으로 삼으면서 새운 서원은 '평생을 부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겠다'이다.

중학교를 미션스쿨에 다녔다. 그래서 그곳에 위치한 교회문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 생활자체는 물론이고 학교생활도 거의가 기독교생활로 점진물하게 되었다. 예 배시간은 물론이고 학교 시험 과목에도 꼭 연결되어 목 사님의 도장을 받아야만 시험점수가 나오곤 했다.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에게 시험점수를 핑계로 계속 교회에 다녔다. 기독교를 떠난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진 교회 생활과 청년부로 들어서면서 내 신앙생활을 더욱더 넓혀 갔다. 학생회 부회장, 회계, 청년회 부회장, 성가대 임원, 국민학교 6학년 반사동 태어나서 처음 접한 기독교생활은 생의 전부였다. 성경암송대회에서는 많은 사람 몰리치고 1등을 해 금메달을 들러진 커다란 성경 찬송가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기독교에 정신없이 빠져계 되니 아버지의 반대가 컸다. 기독교가 이유없이 싫다고 하신

다. 우리 집안은 그렇다고 불교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아침마다 부뚜막에 정수와 밥을 올려 놓고 빌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내면 토속신앙에 가까웠던 것이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합수 록 나는 더욱 신앙생활에 열중이었다. 지금도 우리 친척들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내가 불교신자로 바뀐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다니기를 8년여,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지금의 내 남편이 대학측계 파트 너가 돼달라고 해서 잠깐 응하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계속 쫓아다녔고, 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내 공부할 일이 있었고 그는 복잡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별로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

"기독교 며느리감 싫다는 시어머님 말씀에 고민 CBS 상담실 문 두드려 다시 태어나는 길 찾아"



그러나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집을 1년반 동안이나 찾아와 엄마 아버지를 설득해 결혼을 당면지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도 그의 정성에 감동받아 그가 대학 4학년 2학기를 맞았을때 우리는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집안은 철저한 불교집안이었다. 기독교 며느리는 싫다는 시어머님 말씀에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삼형제의 장남이고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와 충돌은 뻔한 일. 그는 어머님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결혼을 하면 교회에 안다닌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내게 와서서 어머니와 분가해서 살테니까 그때 교회 다니면 된다는 것이다. 남편도 집안은 불교이지만 대학을 미션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오히려 가까웠다. 그리고 많은 이해심이 있었다. 나는 혼자 끄덕거리며 괴로워하다 기독교 방송에 '같이 생각해 봅시다'라는 프로에 편지를 띄웠다. "결혼을 며칠 앞둔 사람인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시댁은 불교집안이다. 사람은 좋아서 결혼하고 싶지만 우상숭배를 하고 미신을 믿는 곳에 시집가기가 싫다. 그 어머니도 반대를 하고..."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 프로를 담당하고 있는 모대학 교수님은 예리한 답변을 주셨다. 그 답변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나 싶다.

김 모명심 (피주 보광사)



세계적인 한국맛!

비락식혜는 세계로 수출됩니다.

미국에서 처음 맛본 요, 비락식혜— 지금도 그맛을 잊을수가 없어요! 어릴적 어머니가 해주신 식혜— 딱 그맛이지 뭐예요?

그 후론 전 비락식혜만 마셔요! 입안에 착 붙는 요 비락식혜— 요즘, 외국에서도 인기예요!

